그많데에서 활동한지 1년이 되어가고 고3이 됐다. 마지막 잡지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마지막 기사를쓴다는 마음으로 그 동안 그많데에 있으면서 느낀 것들, 생각한 것들을 말해보고자 한다.

1 노력

대학 이야기를 먼저 하겠다. 사실 IT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오든 자신의 실력을 최우선으로 존중 받고 그것으로 평가 받는다. 박찬암, 구사무엘, 홍민표 씨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우선 이들의 경력을 위키백과를 통해 확인해보자.

박찬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05년](http://ko.wikipedia.org/wiki/2005%EB%85%84) 당시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B2%AD%EC%86%8C%EB%85%84_%EC%A0%95%EB%B3%B4%EB%B3%B4%ED%98%B8_%ED%8E%98%EC%8A%A4%ED%8B%B0%EB%B2%8C&action=edit&redlink=1)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http://ko.wikipedia.org/wiki/2007%EB%85%84)에는 [고교생 해킹 보안 챔피언십](http://ko.wikipedia.org/wiki/%EA%B3%A0%EA%B5%90%EC%83%9D_%ED%95%B4%ED%82%B9_%EB%B3%B4%EC%95%88_%EC%B1%94%ED%94%BC%EC%96%B8%EC%8B%AD)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데프콘](http://ko.wikipedia.org/wiki/%EB%8D%B0%ED%94%84%EC%BD%98) CTF 해킹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제 4회 Corea Hacking Challenge, KAIST vs Postech(전 포항공대) [Science War](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Science_War&action=edit&redlink=1) 해킹대회 등의 운영과 문제출제를 맡은 바 있으며, [리눅스](http://ko.wikipedia.org/wiki/%EB%A6%AC%EB%88%85%EC%8A%A4) 운영체제 상의 심각한 취약성에 대한 보안 패치를 발표하는 등 공익을 위한 보안에도 기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http://ko.wikipedia.org/wiki/%EC%9D%B8%ED%95%98%EB%8C%80%ED%95%99%EA%B5%90)에 진학한 그는 [코드게이트](http://ko.wikipedia.org/wiki/%EC%BD%94%EB%93%9C%EA%B2%8C%EC%9D%B4%ED%8A%B8) 국제보안컨퍼런스에서 일부 세션을 진행한 것을 포함하여, [KISA 해킹방어대회](http://ko.wikipedia.org/wiki/KISA_%ED%95%B4%ED%82%B9%EB%B0%A9%EC%96%B4%EB%8C%80%ED%9A%8C)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7]](http://ko.wikipedia.org/wiki/%EB%B0%95%EC%B0%AC%EC%95%94#cite_note-7)하였다. [2009년](http://ko.wikipedia.org/wiki/2009%EB%85%84)에는 [코드게이트](http://ko.wikipedia.org/wiki/%EC%BD%94%EB%93%9C%EA%B2%8C%EC%9D%B4%ED%8A%B8) 국제해킹방어대회에 CParK 이라는 팀으로 출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같은 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Hack In The Box 컨퍼런스의 최대 관심사였던 세계 해킹대회(Capture The Flag)에서 KOREA 팀으로 출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구사무엘

[선린인터넷고등학교](http://ko.wikipedia.org/wiki/%EC%84%A0%EB%A6%B0%EC%9D%B8%ED%84%B0%EB%84%B7%EA%B3%A0%EB%93%B1%ED%95%99%EA%B5%90) 3학년이던 [2007년](http://ko.wikipedia.org/wiki/2007%EB%85%84), [정보통신부](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3%B4%ED%86%B5%EC%8B%A0%EB%B6%80) 주최 제4회 해킹방어대회 본선에 진출했으며, 같은 해 [고교생 해킹 보안 챔피언십](http://ko.wikipedia.org/wiki/%EA%B3%A0%EA%B5%90%EC%83%9D_%ED%95%B4%ED%82%B9_%EB%B3%B4%EC%95%88_%EC%B1%94%ED%94%BC%EC%96%B8%EC%8B%AD)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해커로 알려졌다.

2008년 [건국대학교](http://ko.wikipedia.org/wiki/%EA%B1%B4%EA%B5%AD%EB%8C%80%ED%95%99%EA%B5%90)에 진학한 후, 메이킹(mayking)이라는 팀의 구성원으로 제5회 [KISA 해킹방어대회](http://ko.wikipedia.org/wiki/KISA_%ED%95%B4%ED%82%B9%EB%B0%A9%EC%96%B4%EB%8C%80%ED%9A%8C)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조선일보](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C%EB%B3%B4)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각종 기업과 정부기관, 군 등에서 해킹 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2008년 7월에는 한 보안 관련 회사로부터 인턴십 채용 및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았다.

홍민표

최고

화려한 경력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다. 그리고 박찬암 씨는 인하대학교를, 구사무엘 씨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홍민표 씨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보보호학과 박사과정을 재학 중이시다. 인하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이 인생을 결정 짓지 않는다.’이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짓는 것은 오직 나의 노력 여하일 뿐이다.

하지만 확실히 한 것은 있다. 모두가 이야기하듯 대학은 나의 인생을 결정 짓진 않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다시 그많데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자.

그많데에 있으면 활동을 게을리 했던 꾸준히 했던 그것은 결과로 나타난다. 제대로 된 결과를 내고자 한 부원들에게는 결코 재능이 요구되지 않았다. 얼마나 엸

2 그많데의 좋은 점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느꼈다.

- 프로젝트 형식의 활동

- 자유로운 분위기

- 그많데가 학교 생활의 전부인 부원들

- 활발한 정보 공유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오늘날의 그많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 누고도 나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자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말 편했다. 자유로운 분위기 덕에 정신적으로 동아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이 활동은 자연스레 프로젝트의 형식을 띠어서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으로 기록된다. 학술제를 대비할 때 큰 이점이 되는 요인이다. 또한 활동들은 졸업 논문, 수학 교과서 심층 탐구 대회 등 여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쓰일 자원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활발한 정보 공유도 그많데의 엄청난 이점이다.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계없이 아이디어와 지식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오지랖을 부려본다. ‘너 이번에 만드는 프로그램은 병신 같더라’ 처럼. 활발한 정보 공유는 프로젝트에게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주고 이는 높은 완성도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그많데 부원들은 그많데 활동이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하루 종일 디버깅을위해 코드 속에 파묻혀 살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열중하기도 한다. 이런 요인이 오늘날의 그많데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3 그많데가 개선할 점

- 선후배 간 활발한 교류의 부재

- 후배 교육의 비다양성

다행히 그많데 2기는 성실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3기의 후배들에게도 같은 것을 바라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어떤 후배가 동아리에 들어오더라도 그많데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벅찬 동아리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와 수준은 세월이 흘러도 유지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후배간의 활발할 교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많데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다른 부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1기와 2기 간의 교류는 거의 없다고 느낀다. 앞서 말했듯 1기 부원들이 간섭할 필요도 없이 2기 아이들이 워낙 성실해서 지금은 별 탈이 없지만 시간이 흘러 그많데 24기를 뽑을 쯤에는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선후배간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후배 교육 또한 C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것도 개선할 점이다. 물론 C를 통해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C를 가르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C 문법 교육만이 후배 교육의 전부란 것이다. 모든 그많데 부원들은 다른 부원들보다 뛰어난 분야가 하나씩은 있다.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얻은 지식들을 후배들이 깨우친다면 그많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부원들이 귀찮음을 느껴서 C 문법 강좌 이후에는 후배 교육이 중단됐지만 다시 여러 분야에서의 교육이 재개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마치며